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이 성 미

2012 년 8월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지도교수 송 재 홍

이 성 미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이성미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2년 8월

A Concept Mapping Study of Chinese Students'
Campus Life Maladjustment Factors
in Jeju Island

Lee, Sung Mi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Jae H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2012. 8.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4
1) 대학생활 적응.....	4
2) 중국인 유학생 현황.....	5
(1) 국내 중국인 유학생 현황.....	5
(2)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 현황.....	6
3)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2. 연구방법으로서의 개념도.....	9
1) 개념도의 일반적 절차.....	9
2) 개념도 활용 선행연구	12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연구절차	16
IV. 연구결과	20
1.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 개념도.....	20
1) 대학생활 부적응 관련 진술문.....	20
2) 다차원 척도분석.....	22

(1) 차원의 수.....	22
(2) 차원명.....	23
3) 위계적 군집분석.....	25
(1) 군집수.....	25
(2) 군집명.....	28
4)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 상대적 중요도.....	28
5) 개념도 해석.....	32
V. 논의 및 제언	35
1. 논의.....	35
1) 차원과 대학생활 부적응 군집.....	35
2)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 군집별 상대적 중요도.....	36
2. 제언.....	38
3. 제한점.....	39
참고문헌	41
Abstract.....	45
부록	47

표 목 차

<표 II-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	5
<표 II-2>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 현황	7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15
<표 IV-1> 최종 진술문.....	20
<표 IV-2> 각 차원의 수에 따른 통계값.....	22
<표 IV-3> X, Y 좌표값.....	26
<표 IV-4> Ward 방법을 사용한 군집분석 결과 분류된 군집과 포함 진술문...28	

그 립 목 차

[그림 II-1] 국내 중국인 총 유학생 년도별 현황.....	6
[그림 III-1] 개념도 전체과정.....	16
[그림 IV-1] 스트레스 플롯.....	23
[그림 IV-2]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	24
[그림 IV-3] 위계적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27
[그림 IV-4]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에 대한 개념.....	32

<국문초록>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이 성 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전공

지도교수 송 재 흥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 생활 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밝히는 데 있다.

기존에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체류기간, 성별, 연령 등 일정한 변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정도를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양적연구가 대부분 이어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지각하는 대학생활 부적응 경험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참여자의 인식구조를 시각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개념도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과 심리적 차원은 어떠한가, 둘째,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의 상대

적 중요도는 어떠한 가이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따랐다. 먼저, 제주지역에 소재한 J대학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제외) 1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부적응 경험에 대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110개의 진술문이 수집되었다. 전체 진술문을 종합·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1개의 최종진술문을 획득하였다. 최종 진술문은 14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 분류를 부탁하였고, 각 진술문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분류결과를 토대로 다차원 척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각 연구문제에 대해 2차원, 4개의 군집으로 이루어진 개념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들은 ‘주관적-객관적’ 차원과 ‘환경적-개인적’ 차원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대학생활 부적응 경험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부적응 경험을 추출한 결과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각 군집은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및 식생활 어려움’, ‘대학 시설 및 운영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명명되었다. 4개의 군집에 대한 평정결과를 살펴봤을 때 4개의 군집 중 ‘경제적 어려움’ 군집이 $M=4.07$ 로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군집으로, 다음으로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 군집이 $M=3.74$ 로 두 번째로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교육시장 개방과 더불어 해외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이 수립·추진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4. <http://mest.korea.kr/gonews/>). 동시에 학생 충원난과 대학구조 개혁정책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대학들에게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가 대학재정 확보 및 학생 충원난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떠오름에 따라 각 대학은 유학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부가 2004년에 수립한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2012년까지 10만명으로 유치목표를 상향조정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http://mest.korea.kr/gonews/>).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최근 자국의 경제적, 문화적 성장에 힘입어 미국,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비와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 유입이 늘고있는 실정이다. 중국인 유학생 중 학업을 목적으로 D-2¹⁾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05년 15,790명에서 2011년 6월 현재 51,870명으로 2005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 2011. <http://www.immigration.go.kr>).

그러나, 이러한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그들이 처한 교육적 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언어문제, 문화적응, 경제적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국내 대학이 수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중국인 유학생을 모집·유치하고, 학사관리 및 지원을 충실하게 하지

1)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야간대학원 포함)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않아 유학생들의 중도탈락 및 대학생활 부적응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의 불만으로만 그치지 않고 반한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한국고등교육에 대한 평판 악화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http://mest.korea.kr/gonews/>).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대학의 지원노력 유도, 중국정부에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체계적으로 국내 대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학알리미’ 영어 웹사이트 서비스 개시하고 2012년에는 중국어 웹사이트도 구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대학 입학만이 아니라 Study in Korea사이트와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한·중 교역 확대에 따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생활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http://mest.korea.kr/gonews/>).

한편, 국내 지역 중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경우,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무비자(No Visa)에 대한 권한 이관으로 무사증 대상국가가 180개로 늘어나 외국관광객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또한 교육분야에서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 국제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제주의 소리, 2011.<http://www.jejusori.net/news/>).

이러한 요인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제주도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도내 중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유학생 중 90%이상 차지하게 되었다(대학알리미, 2011). 제주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협력하여 도내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유학생 홍보단’을 창설하였다. 홍보단원들에게는 제주도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체험 및 1박2일 간 도내 팸투어를 지원하고, 우수 홍보단원시상,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기회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제주도를 홍보하고 있다. 홍보단의 대부분이 중국인 유학생임에 따라 제1주력 시장인 중국지역 제주도 홍보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연합뉴스, 2011. <http://www.yonhapnews.co.kr>

/bulletin/2011/04/28). 하지만 제주도 주관의 대부분 프로그램들의 주요목적이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실제 ‘한국’이라는 문화 그 중 ‘제주’라는 특수한 지역문화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학교 강의를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문제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러한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의 부적응 요인들로 언급되는 것들을 면면이 살펴보는 일이야 말로 제주도와 도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정책 실행에 앞서 살펴보아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념도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떠한 차원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또한 어떠한 군집의 형태로 분류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나아가서는 각각의 항목과 군집의 위치를 개념도를 통하여 명확하게 하고 각 요인들의 중요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들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가.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은 어떤 것인가?
- 나.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부적응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1) 대학생활 적응

적응(adjustment)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맞추어 잘 어울리거나 알맞게 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개인의 투쟁을 의미한다(박미숙, 2010). 인간의 적응에 대한 개념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어떤 스트레스 하에서도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매일의 일을 관리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다(황해연, 2007).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이란 개인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요구들이 뒤따르는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적응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개념이라 하였다(Zou Zhendong, 2009).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환경에 의해 자신의 건강이나 환경에 의해 자신의 건강이나 행복을 잃지 않고, 자신이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며, 자신의 삶을 유의미한 것으로 가꾸어 나가는 매사의 노력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가리키며, 한국사회의 규칙·풍습·문화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상태라고도 설명하였다(나임순, 2006). Baker와 Siryk는 대학생활 적응을 4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는 학생들이 대학의 학업적인 요구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학업적 적응, 둘째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이라고 하는 사회적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 안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사회적 관계 및 조직을 형성하는 것,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교수 및 친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적응이다. 세 번째는

대학생들의 상호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가치 및 개인의 인격 형성, 자기존재의 본질과 역할, 자기 탐색 과정과 관련된 개인적-정서적 적응, 마지막 네 번째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애착 및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 목표에 대한 몰입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적응 등 4가지로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다(나임순, 2006, 재인용).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어떠한 상황, 환경에 처할 때 역할을 가지게 된다.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을 충실이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 만약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학업적·사회적 부적응까지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성한기·서주원, 1987).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개념들을 정리하여,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라 정의하도록 하겠다.

2) 중국인 유학생 현황

(1) 국내 중국인 유학생 현황

교육과학기술부(2011) 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학에서 학업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총수는 총 89,537명이다.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이 66.2% (59,317명)으로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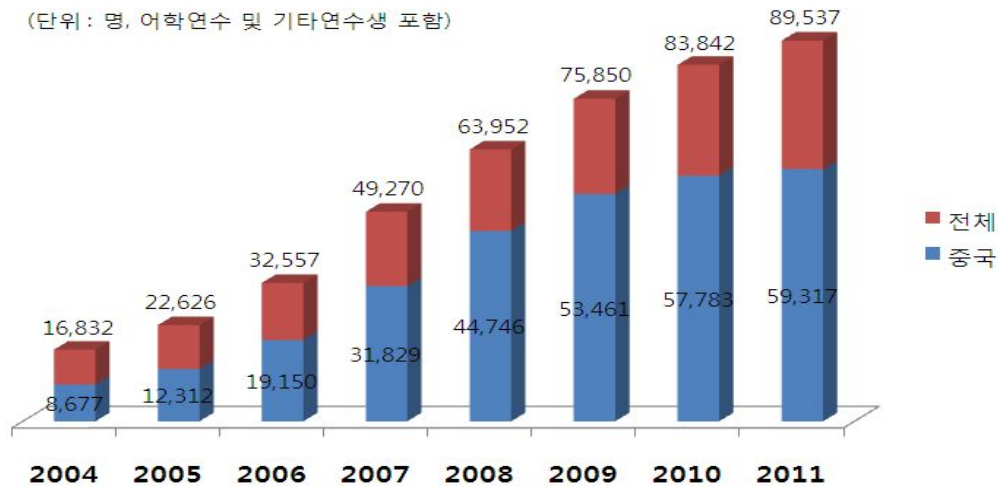
구분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베트남	대만	기타
학생수(명)	59,317	4,520	3,699	2,707	2,325	1,574	15,395
비율(%)	66.2	5.0	4.1	3.0	2.6	1.8	17.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http://mest.korea.kr/gonews/>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1990년 이후 한국과의 수교 및 문화개방과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유치와 한류열풍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와 홍보 등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중국 정부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귀국하여 취직 할 것을 요구하고 조국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중국인 유학생 유입의 또 다른 배경이 될 수 있다(이은실, 2008).

앞서 언급된 원인 등으로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은 2004년 8,677명에서 2011년 59,317명으로 7년 동안 약 7배가 증가 하였으며 현재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1] 국내 중국인 총 유학생 년도별 현황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http://mest.korea.kr/gonews/>

(2)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 현황

제주지역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현황은 <표 II-2>에 나타나 있다. 제주대학교가 14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탐라대학교(127명), 관광대학교(100명), 한라대학교(97명), 산업정보대학교(47명)으로 총 513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중 제주 유일의 거점 국립대인 제주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142명 중 132명(93%)이 중국인 유학생이며, 탐라대학교는

127명의 외국인 유학생 모두가 중국인 유학생이다. 한라대학교 역시 97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모두 중국인 유학생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제주지역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2>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 현황

대 학	총 유학생 수	중국인 유학생 수	비율
제주대학교	142	132	93%
한라대학교	97	97	100%
관광대학교	100	99	99%
산업정보대학교	47	45	96%
탐라대학교	127	127	100%
소 계	513	500	98%

※자료 : 대학알리미(2011), <http://www.academyinfo.go.kr>

3)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국인 유학생은 유학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 보고되고 있다. 적응 어려움 중에 특히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인 중 한족 유학생의 경우 사회로부터의 격리, 고독감, 친구없음, 음식습관 차이, 한국에 대한 실망, 성적억압, 기후, 한국어 능력문제 등이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어려움으로 밝혀졌다(허춘영, 1998). 게다가 유학생은 쉽게 고독에 빠지고 고민을 털어 놓을 친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로 인해 적응력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아 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장혁심, 2005).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문화의 수용도가 이들의 대학적응을 좌우한다는 연구도 있다(김영성, 2006). 김삼화(2005)는 중국유학생들은 문화차이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 문화이해의 어려움, 문화적응의 어려움 및 문화충돌을 해결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 등 이었다. 물질적 지지나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가 높아도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적 지지는 장학금이나 아르바이트 수입과 그들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평가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라고 하였다(장혁심, 2005).

한편,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를 보면 유학을 온 중국유학생들은 특히 학교에서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승중, 1995). 학교생활의 만족여부는 학업의 성취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학교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은 학업성취에도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학업에 대한 동기도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재영·신준섭, 1997). 반면에 학교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 혹은 동기도 낮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성취하고 한국에서 취직하거나 중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어떤 유학생들은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취직하거나 불법으로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이해영, 2001; 장혁심, 2005).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에서의 적응경험은 ‘가깝게 느껴짐’, ‘초기낯섦’, ‘익숙해짐’, ‘새로운 낯섦’ 네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학생생활에 대한 기대수준 및 성취동기, 언어능력, 당면문제의 성격 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이화, 김아영, 김대현, 2007). 중국유학생의 적응양상 연구에서 중국유학생들은 ‘동화하는 학생들’, ‘전통적인 학생들’, ‘실용주의적인 학생들’, ‘갈등이 많고 격리된 학생들’ 등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적응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허춘영, 김광일, 1997).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에게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한국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적응유형은 통합, 동화, 격리, 주변화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우, 2005).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일차적인 환경은 대학으로 대학생활을 통해 한국문화와 동시에 하위문화로서 한국의 대학문화를 접하게 된다(임춘희, 2009). 그러므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스트레스는 대학생활문화에 초점을 두고 그 속에서 적응해가는 요소 혹은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으로서의 개념도(Concept Mapping)

개념도 연구방법은 구조화된 개념화를 위한 프로세스 중 한 가지로 질적인 연구방법 및 양적인 연구방법을 통합한 것이다. 개념도는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직접 자료를 생성하고 모으는데 보다 적극적인 위치에 있게 한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현상이나 구성요소 그 현상속에 기저하는 구조 등을 명료화 할 때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정찬석, 2005, 재인용). 개념도 방법론의 절차상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이나 평가 단계에서 빠르게 문제를 이해하고 체계를 만들 수 있게 하며, 둘째, 전문가의 독단적인 관점보다는 다양한 참여자의 관점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셋째, 시각적인 자료의 제공으로 주요한 아이디어들과 그것들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개념도는 연구결과와의 해석에 있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모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다각화를 추구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다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오창환 · 정철영, 2007).

1) 개념도의 일반적 절차

본 연구에서는 오창환 · 정철영(2007)의 연구에서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개념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개념도는 일반적으로 1단계 : 준비단계(Preparation), 2단계 : 진술문 도출(Generation of Statements), 3단계 : 진술문 구조화(Structuring Statements), 4단계 : 진술문의 개념화(Representation of Statements), 5단계 : 개념도 해석(Interpretation of Maps) 이상 전체 5단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단계로 진술문을 도출하기 위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무선표집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개념도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소수 그룹의 의견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층화표집이나 유의표집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 참여자 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설정된 규정은 없지만 10~20명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고하고 있다. 참여자의 수는 의견의 다양성 및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해석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개념도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로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활용된다. 이때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된다. ①참가자들은 최대한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②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며 ③모든 참가자들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공유 할 수 있도록 특수한 용어, 모호한 용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참가자 모두가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제시되는 문장 및 키워드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참여자가 있다면 온라인을 통하여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이 완료되면 연구자는 도출된 진술문 혹은 키워드들을 지표화하기 위해 편집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진술문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게 되는 단계이다. 일차적으로 연구자는 카드분류 작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도출된 진술문을 카드에 한 장씩 프린트 되고 이를 모든 참가자들에게 배부한다. 참가자들은 자기의 나름의 논리에 따라 카드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첫째, 각각의 지표는 오직 하나의 그룹에만 속할 수 있으며, 둘째, 모든 지표들이 하나의 그룹에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규칙만을 제시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허용한다. 참가자들이 분류한 카드는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2진법의 행렬로 코딩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과물로 도출되는 행렬의 크기는 지표의 수에 따른다. 각각의 행렬에는 참가자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그룹으로 설정한 지표들끼리는 1로, 다른 그룹으로 설정한 지표들끼리는 0으로 코딩한다. 이 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 진술문들의 중요도를 조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각각의 진술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사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진술문의 개념화 단계로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하게 된다. 다차원 척도법은 행렬 데이터를 투입 데이터로 하여 행렬 내 항목들 간의 거리를 차원으로 표현하여 주는 통계적 기법이다. 다차원 척도법의 수행에 있어,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가장 적합한 차원을 설정해야 한다. 차원값은 최소값으로서 1, 최대값으로서(지표의 수-1) 차원까지 설정될 수 있는데, 1차원일 경우 모든 점은 하나의 선에 표시되며 2차원일 경우 x-y그래프를 사용하여 각 진술문들을 개념화하게 된다. 연구자는 n차원에서 1차원 영역까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차원의 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3차원 이상의 차원을 설정할 개념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대부분 2차원을 활용한다.

다차원척도 분석에서는 대상들 간의 상대적인 거리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적의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반복계산을 계속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을 통해 적합도로 알아볼 수 있다. 스트레스 값이란 다차원척도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불일치 정도로서 진술문간의 실제거리와 추정된 거리사이의 오차를 의미한다. 스트레스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스트레스의 값이 작을수록 추정거리의 적합도는 높다(이학식 · 임지훈, 2011).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값 판별 기준 kruskal의 기준을 많이 활용하지만 Kane & Trochim(2007)에 따르면 그 기준은 매우 엄격한 심리측정 도구에서는 적용 가능하지만 개념도 작업에 적용하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며, 실제로 개념 매핑과 관련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kruskal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한다. Kane & Trochim(2007)이 실시한 개념도 연구방법과 관련한 메타연구 결과 개념도 연구의 95%가 .20에서 .36의 사이의 스트레스 값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차원분석 후 진술문들을 비슷한 개념을 가진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 분석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Ward법을 많이 활용한다. 이는 다차원 척도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값을 적용하는데 있어 Ward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질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Kane & Trochim, 2007).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개념도 작업에서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지 않고, 연구자가 연구결과의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군집의 수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지면 다차원척도법의 결과로 나타난 2차원 개념도를 작성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개념도 해석단계로 위의 절차에 의해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을 바탕으로 진술문들 간의 관계를 해석하게 된다.

2) 개념도 활용 선행연구

연구방법으로서 개념도를 활용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개념도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상을 경험하는 연구참여자 입장에서 질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다. 질적인 연구결과가 연구자의 통찰에 의존하는 반면 개념도 연구방법은 양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개념도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념도 연구방법을 이용한 중국인 유학생 관련 선행연구로는 이유영 등(201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의 그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과 스스로 지각하는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개념도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적응 대처전략과 변화양상에 대한 인식은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밝혀내었다.

역시 개념도를 활용한 선행연구로 박경우·여은호(2010)의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소통인식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한국사회와 교류하면서 느끼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이다.

중국인 유학생 관련 이외에 개념도를 활용한 연구로는 이현아(201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상담을 경험한 학생 내담자를 대상으로 개념도 방법론을 사용하여 학생 내담자의 입장에서 지각하고 있는 학교상담의 도움요소와 불만족요소를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내담자가 학교상담의 어떤 부분을 도움요소나 불만족 요소로 인식하는지 그들의 추측을 탐색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학교상담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 내담자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학교상담을 제공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함께 비교함으로써 수요자와 제공자 사이의 지각차이를 다면적으로 보았다. 또한 학생 내담자들이 인식하는 학교상담의 도움요소와 불만족 요소를 탐색하여 학교상담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학교상담의 효과적인 정착을 꾀하였다.

또한 김지연·한나리·이동귀(2009)의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와 상담전문가가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비교하였다. 상담자 경력에 따른 경험의 차별적 특징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상담자 발달 단계 중 초심자와 전문가가 각각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심도있게 조사함으로써 상담자 교육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었다. 허보연(2010)의 연구에서도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로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요인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여자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이해하는데 보다 타당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윤정·김계현(2007)의 연구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진로단절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내면적으로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를 개념도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고학력 기혼 여성들은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해 다중역할 갈등수준과 자아성취 의지의 두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5개의 군집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각각의 군집 내 진술문들에 대해 공감의 정도에 따라 평정한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일과 가족 사이에서의 갈등,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의 경험에서 두 집단이 달리 경험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피험자들이 특정 경험과 관련된 개념을 연구자들이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그 개념을 범주화 하고, 그 범주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배열되거나 한데 모여 있는지 살폈다. 그리고 배치된 범주들의 위치와 근접성에 따라 세부적인 피험자 경험의 내용과 관계를 밝혀, 각 범주들의 평정치에 따른 경험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개념도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어떤 특정한 변수에 의해 수치로 계산되어진 결과가 아닌 어떤 특정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 경험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것들을 당사자들의 개념적 구조를 통해 알아보았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 관련한 선행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선행연구는 양적인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체류기간, 성별, 연령, 유학동기 등의 일정한 변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의 상관정도를 수치적으로 파악하여 얻은 일률적이고 일반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대해 어떠한 차원에서, 어떠한 요인이, 얼마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양적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합한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해 심도있게 알아보고, 각 요인에 관한 중요도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차원에서의 중국인 유학생 관리 시스템 개선과 중국인 대학생활 적응 및 한국과 중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제도 개선에 도움을 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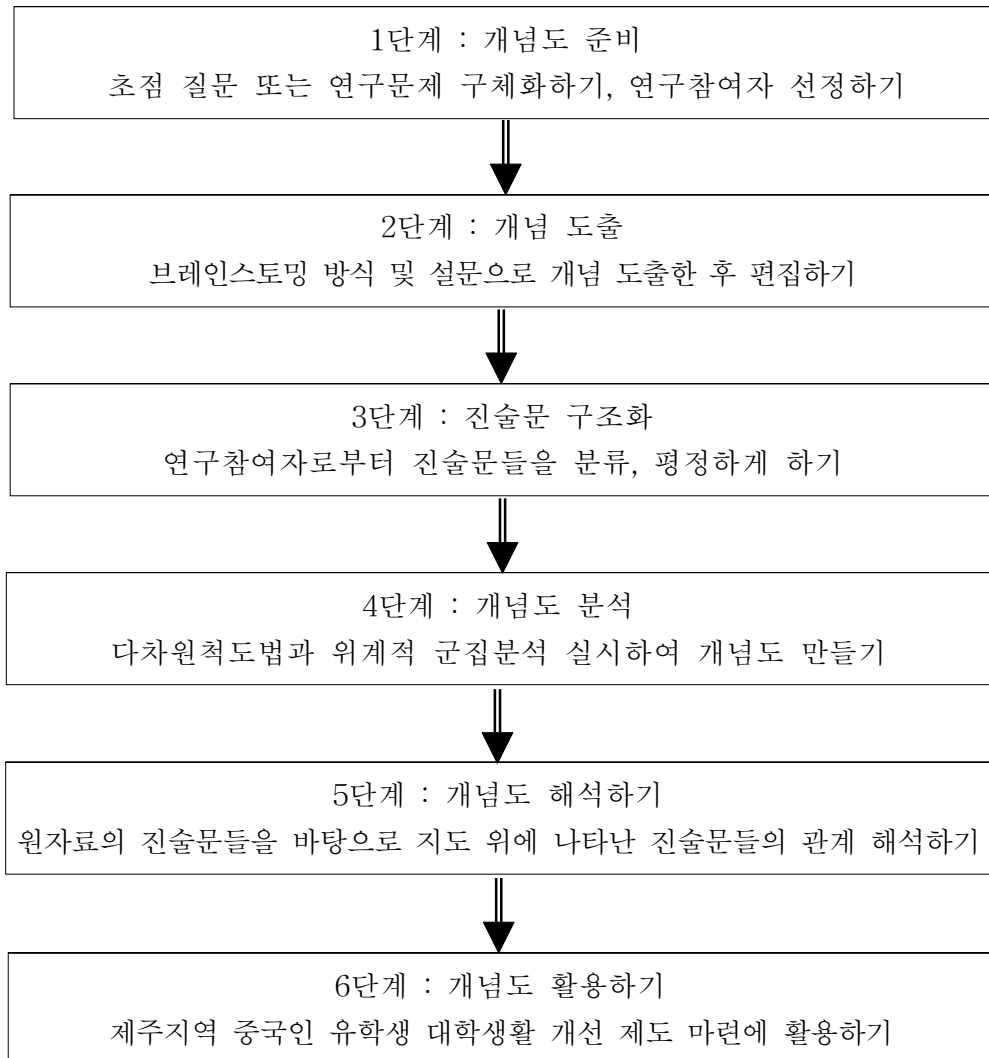
개념도 연구방법에서 연구자 수는 크게 제한이 없으나 개념을 충분히 산출 할 수 있는 참여자의 수를 최소 10명에서 20명으로 권장하고 있다(Trochim, 1989).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J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제외) 15명을 선정하였다. 이때 유학기간이 적어도 한 학기 이상을 대학생활 경험이 있는 6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연령은 23살로 남자가 5명, 여자가 10명이며, 평균 유학기간이 1년 5개월이었다.

<표 Ⅲ-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번	성별	연령	학년	유학 준비기간	입학년도	유학기간 (2012.3.1기준)
1	남	20	1	6~12개월	2011년 8월	7개월
2	남	23	1	3~6개월	2011년 8월	7개월
3	여	22	2	1년~2년	2011년 3월	1년
4	여	22	2	1년~2년	2011년 3월	1년
5	여	23	2	3~6개월	2011년 3월	1년
6	남	23	2	3~6개월	2011년 3월	1년
7	여	24	3	1~3개월	2009년 8월	2년 7개월
8	남	25	2	3~6개월	2010년 8월	1년 7개월
9	여	22	2	3~6개월	2010년 8월	1년 7개월
10	여	25	3	6~12개월	2009년 8월	2년 7개월
11	여	23	2	1~3개월	2010년 8월	1년 7개월
12	남	22	2	6~12개월	2011년 3월	1년
13	여	23	2	6~12개월	2010년 8월	1년 7개월
14	여	23	3	3~6개월	2010년 3월	2년
15	여	23	3	1년~2년	2010년 3월	2년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을 탐색하고자 개념도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Kane & Trochim(2006)이 제시한 개념도에 근거해서 진행되었다. 이들이 제시한 개념도 과정 절차는 [그림 III-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최윤정 · 김계현, 2007, 재인용).



[그림 III-1] 개념도 전체과정

1) 1단계 : 개념도를 위한 준비단계

첫 단계는 개념도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진술문을 도출하기 위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J대학교 국제교류본부 중국인 유학생 담당선생님께 의뢰하여 대학생활 경험이 6개월 이상인 학부재학생 15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관련 경험을 통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2) 2단계 : 개념 도출단계

두 번째 단계는 개념도출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1단계에서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2012. 3. 12, 국제교류본부 강의실)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그 후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무엇인지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으나 연구 참여자들이 중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설문으로 재실시하였다. 15명의 연구 참여자 중 6명은 학사일정과 아르바이트 시간으로 인해 연구자가 직접 만나지 못하여 국제교류본부 중국유학생 담당 선생님께 연구목적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사전교육을 한 후 개별적으로 설문을 작성토록 하였다. 약 1주(2012년 3월 12일 ~ 3월 18일)간 연구 참여자들에게 먼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후에도 이메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 110개를 도출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한국어로 표현상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작성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중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는 J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 선생님의 협조를 통해 번역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개념 분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J대학교의 국제교류본부 중국인 유학생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110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개념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고 명료화하여 재 진술하여 개념도 분석에 사용할 최종 41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3) 3단계 : 진술문(statements) 구조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들을 구조화하는 단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산출된 41개의 진술문들을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평정하게 하였다. 당초 개념 도출을 위해 15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으나 분류·평정단계에서 1명의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참여를 하지 않아 14명의 연구 참여자만 분류·평정하였다. 진술문 분류 및 평정 작업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사 및 아르바이트 일정을 고려하여 2012년 4월 2일(6명), 2012년 4월 5일(4명), 2012년 4월 6일(4명)로 3회에 나누어 국제교류본부 유학생 지원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진술문 구조화 및 평정작업은 개인당 평균 30분~40분이 소요되었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은 진술문들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는데 이때 모든 진술문을 하나의 파일로 분류하지 말 것과 각 진술문은 하나의 파일에만 분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는 중국인 유학생 담당 선생님의 통역으로 설명되었다. 아울러, 41개의 진술문을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공감의 정도에 따라서 5점 척도로(매우 공감함 5점, 공감함 4점, 약간 공감함 3점, 공감하지 않음 2점, 전혀 공감하지 않음 1점) 평정하게 하였다.

4) 4단계 : 개념도 분석 단계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 단계로 다차원척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개념도를 만들기 위한 단계이다. 크게 세 가지 순서로 나뉘 이루어졌다. 첫 번째 순서는 개념도 제작을 위해서 가장 먼저 14명의 참여자들이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가지고 개인 유사성 행렬표를 만들었다. 동일한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은 0, 다른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은 1로 코딩하여 연구 참여자 수 만큼 41*41 유사성 행렬을 만든 후, 14명의 파일을 합산한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 : Group Similarity Matrix)를 제작하였다.

두 번째 순서로 집단유사성 행렬표를 바탕으로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척도법 분석을 통해서 지도(좌표)위에 개별적인 진술문들을 점 그룹으로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보다 빈번

하게 같은 것 끼리 묶인 진술문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Kane & Trochim, 2006).

세 번째로는, 다차원 척도법을 통해 산출된 각 점들의 x, y좌표 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은 지도위에 있는 점들을 내적으로 일관된 군집으로 분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최윤정 · 김계현, 2007), 개념도 분석을 위한 위계적 군집분석에서는 Ward 연결방법을 사용하였다. 끝으로 각각의 진술문들에 대한 평균 평정 값을 계산하여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들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개념도 과정 중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연구결과에 해당되므로 제IV장 연구결과 부분에서 기술하였다.

IV. 연구결과

1.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 개념도

1) 대학생활 부적응 관련 진술문

제주지역 J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부적응 관련하여 브레인스토밍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0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념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고 명료화하여 재 진술하여 개념도 분석에 사용할 최종 41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41개 최종 진술문은 <표 IV-1> 와 같다.

<표 IV-1> 최종 진술문

연 번	요 인
1	기숙사에 독방을 쓸 수 없는게 불편하다.
2	학교 교내 전문 문구점이 없다.
3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4	교내 순환버스 배차 설명이 잘 안되어 있어 타는 방법을 모르겠다.
5	한국인 대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6	문화와 생활이 달라 한국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7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
8	수업과 수업사이 쉬는 시간이 짧다.
9	언어가 달라 시험 볼 때 많이 어렵다
10	기숙사비가 비싸다.
11	기숙사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 할 수 없다.
12	한국사람들이 중국과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중국인을 무시해서 힘들다.
13	전공과목의 전문용어가 너무 어렵다.

연 번	요 인
14	수업 중에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15	문화차이로 인해 적응하기 힘들다.
16	매학기 기숙사를 재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17	기숙사 외국인 공공주방에 중국인의 사용이 금지되어 싫다.
18	수강신청이 어렵다.
19	일부 교수님이 수업에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아 싫다.
20	장학금 금액이 적다.
21	기숙사방을 학기마다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
22	유학생회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23	학교 밖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불편하다.
24	교수님의 발음과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25	기숙사에 점심이 안 나와서 싫다.
26	술을 너무 많이 먹는 대학생활에 적응이 안된다.
27	학교 공공시설의 외국어 설명이 적다
28	존대말을 구분하기 어렵다.
29	음식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30	설비가 잘되어 있는 기숙사가 방이 적고 학생수용 능력이 떨어진다.
31	기숙사에서 국제전화하기가 불편하다.
32	학교활동 참여자가 거의 한국인이어서 혼자라 외롭다.
33	학교 순환버스가 많지 않아 수업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다.
34	학교 위치가 시내랑 떨어져서 물건 사는 것이 불편하다.
35	낮은 한국어 능력 때문에 시험 점수가 노력만큼 안나온다.
36	일부 교수님들이 외국학생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37	한국학생과 유학생의 장학금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
38	학과 행사 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
39	학교에서 관광지에 많이 가지 않는다.
40	수업 중 교수님이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41	유학생은 장학등급이 C급 뿐이어서 공부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2) 다차원 척도 분석

(1) 차원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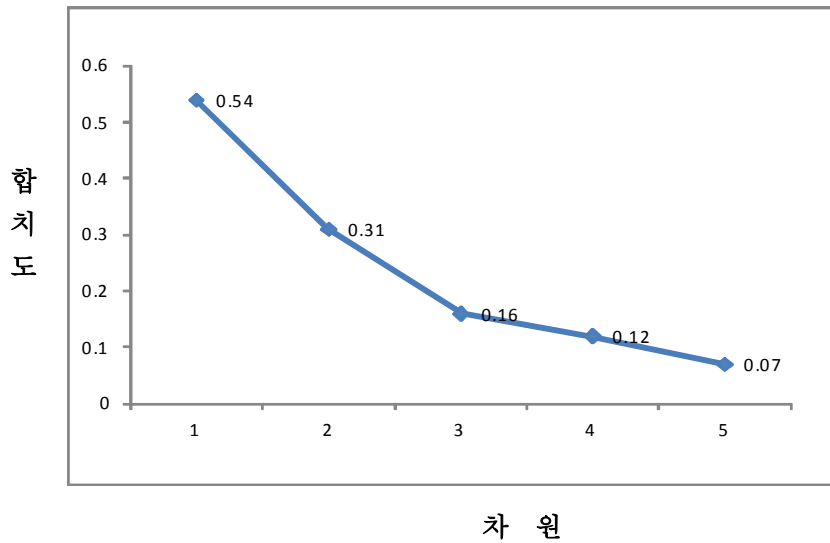
대학생화 부적응 요인 최종 41개 진술문을 연구참여자에게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게 한 결과 최소 3개에서 최대 7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들이 분류한 결과를 모두 합하여 집단유사성 행렬로 만든 후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각 차원의 수에 따른 합치도(stress), 설명량(R^2), 설명량 증가 값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각 차원의 수에 따른 통계값

차원의 수	합치도(stress)	설명량(R^2)	설명량 증가
1	.54	.28	-
2	.31	.66	.38
3	.16	.90	.24
4	.12	.95	.05
5	.07	.96	.01

다차원척도분석에서 차원의 수는 합치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합치도(stress)란 각 개인이 평정한 유사성 자료가 결과로 도출된 차원에서의 거리에 얼마만큼 일치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이 적을수록 합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값을 이용하여 적절한 차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차원의 수의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스트레스 값을 플롯(stress plot)을 그리고, 그 도표에 준하여 차원수를 결정하게 된다(박광배, 2000).

본 연구의 스트레스 플롯은 [그림 I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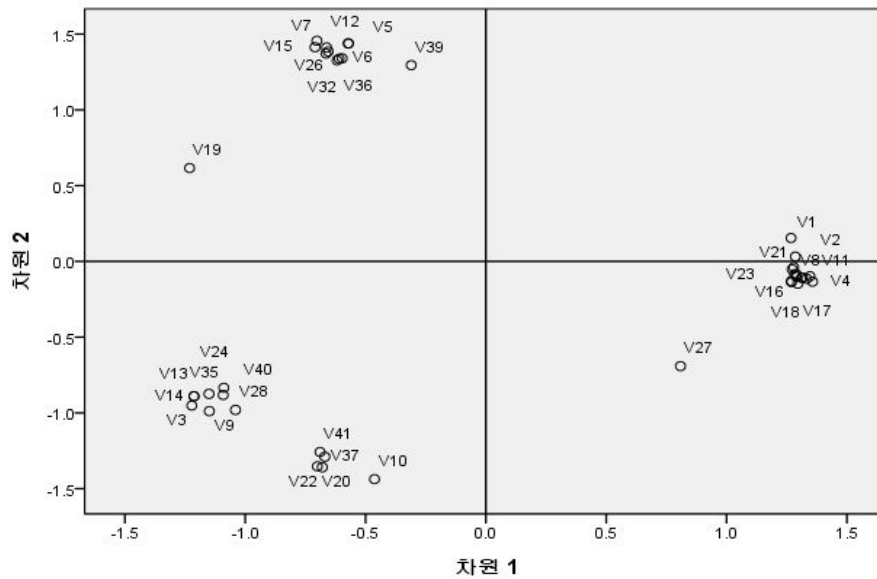


[그림 IV-1] 스트레스 플롯

[그림 IV-1]를 보면 차원의 수가 2일 때 처음 크게 꺾이는 것을 알 수 있다. Kruskal(1964)은 스트레스 플롯이 처음 크게 꺾이는 지점(elbow)의 차원 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이상으로 차원수가 증가하여도 합치도의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원의 수를 2개로 결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2차원의 스트레스 값은 .31로, 이는 개념도를 위한 군집분석에 스트레스 값의 적합한 평균범위(.20 ~ .36)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최윤정·김계현, 2007, 재인용).

(2) 차원명

차원의 수를 2개로 설정한 후, 41개의 진술문들을 x, y지도위의 점으로 표시하면 [그림 IV-2]과 같다. 서로 가까이 있는 점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에 비해 보다 빈번하게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의 위치와 거리, 좌표 값이 가지는 의미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생활 부적응 요인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차원1과 차원2의 명칭을 정하였다.



[그림 IV-2] 다차원척도분석 결과

[그림 IV-2]과 같이, 분석 결과는 차원 1과 차원2에 의해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들이 분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차원1(y축)을 기준으로 분포되어 있는 진술문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이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에 따라 위쪽은 주로 주관적 성격의 진술문이다. 예를 들면, ‘문화차이로 인해 적응하기 힘들다(15번)’, ‘한국 사람이 중국과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중국을 무시해서 힘들다(12번)’, ‘학과 행사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38번)’ 등이 이에 속한다. 주로 자국의 사회·문화와 차이로 인해 유학생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속상함이나 외로움을 나타내었다. 또한 중국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쪽은 주로 객관적인 성격의 진술문으로 ‘언어가 달라 시험 볼 때 많이 어렵다(9번)’, ‘전공과목의 전공용어가 너무 어렵다(13번)’ ‘유학생은 장학등급이 C급 뿐이어서 공부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41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주로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이나 유학생생활 중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차원2(x축)은,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어디에서 주로 오는지에 따라 오른편은 주로 ‘환경적’요인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이, 왼편에는 ‘개인적’요인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적 차원에는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데에 시설이나, 운영제도, 대학교의 위치 등에 대한 불만에 대한 진술문들이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기숙사 외국인 공공주방에 중국인의 사용이 금지되어 싫다(17번)’, ‘매학기 기숙사를 재신청하는 것이 어렵다(16번)’, ‘학교 밖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불편하다(23번)’, ‘기숙사 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 할 수 없다(11번)’ 등이 이에 속한다. 개인적 차원에는 사회, 문화, 언어차이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나 학업의 어려움들을 나타내는 진술문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3번)’, ‘일부 교수님이 수업에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아서 싫다(19번)’, ‘언어가 달라 시험 볼 때 많이 어렵다(9번)’, ‘전공과목의 전문용어가 너무 어렵다(13번)’ 등이 이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차원1은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주관적, 객관적 차원으로 명하였고, 차원2는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부적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환경적, 개인적 차원으로 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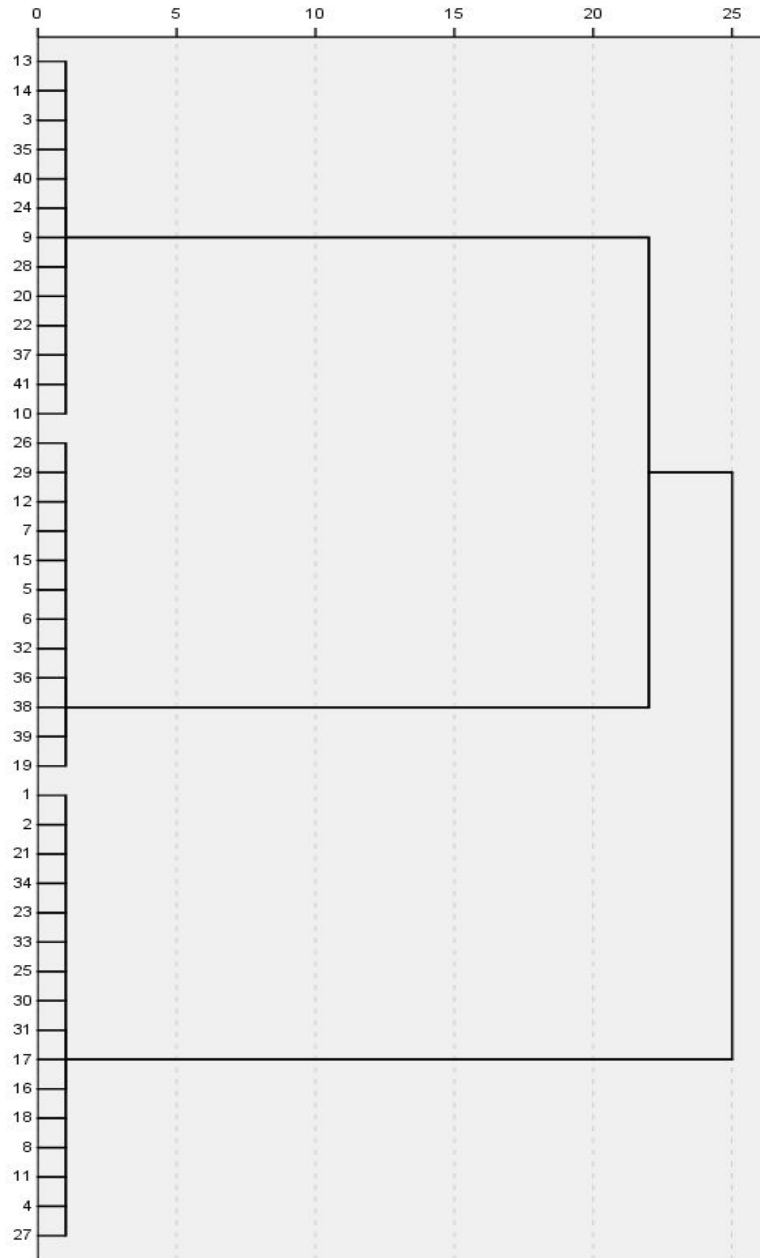
3) 위계적 군집분석

(1) 군집수

군집 분석의 특성상 최종 군집 구분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개념도와 관련하여 범주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정의가 명확치 못하여, 연구주제의 맥락에 맞게 연구자들의 주관에 따라 결정된다(Jackson & Trochim,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와 연구 참여자들이 선택한 군집의 수, 그리고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 지도상의 진술문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해석하기에 적합한 범주를 결정하기 위해 첫 번째는, <표 IV-3>과 같이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하여 얻은 2차원 x, y좌표 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IV-3]과 같은 덴드로그램을 얻었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진술문을 최소 3개에서 최대 7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군집분석 결과 서로 같은 범주로 묶인 진술문들의 유사성과 군집들 간의 진술문들의 차이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해석하기에 적합한 군집의 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표 IV-3> x, y 좌표값

번호	차원		번호	차원	
	1	2		1	2
1	1.2676	.1542	22	-.6798	-1.3588
2	1.2857	.0316	23	1.2908	-.0872
3	-1.2222	-.9515	24	-1.1508	-.8745
4	1.3573	-.1343	25	1.2898	-.1005
5	-.5715	1.4384	26	-.6554	1.3855
6	-.5715	1.4384	27	.8085	-.6913
7	-.7025	1.4560	28	-1.0405	-.9802
8	1.3464	-.0979	29	-.6641	1.3718
9	-1.1491	-.9882	30	1.2694	-.1299
10	-.4628	-1.4371	31	1.2691	-.1362
11	1.3326	-.1143	32	-.5973	1.3403
12	-.6619	1.4116	33	1.2830	-.0847
13	-1.2132	-.8898	34	1.2727	-.0525
14	-1.2132	-.8898	35	-1.0917	-.8818
15	-.7099	1.4134	36	-.6098	1.3375
16	1.3118	-.1083	37	-.6692	-1.2891
17	1.2961	-.1467	38	-.6183	1.3268
18	1.3152	-.1071	39	-.3102	1.2955
19	-1.2313	.6160	40	-1.0890	-.8345
20	-.7004	-1.3526	41	-.6893	-1.2582
21	1.2791	-.0400			



[그림 IV-3]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 덴드로그램²⁾

2) 계층적 군집 해법의 단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각 단계에서 조합되는 군집과 거리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임.

(2) 군집명

군집을 명명하는데 있어서 좌표 상에 진술문들 사이의 상대적 거리와 진술문들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군집의 이름을 명명하였으며, 군집명과 그에 속한 진술문들은 <표 IV-4>에 제시하였다.

<표 IV-4> Ward 방법을 사용한 군집분석 결과 분류된 군집과 포함 진술문

진술문	중요도
■ 군집명 :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	3.74
13. 전공과목의 전문용어가 너무 어렵다.	4.14
14. 수업 중에 보고서나 발표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4.07
3.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3.93
24. 교수님의 발음과 말하는 속도를 적응하기 힘들다.	4.14
35. 낮은 한국어 능력 때문에 시험 점수가 노력만큼 안 나온다.	3.21
40. 수업때 교수님이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3.64
9. 언어가 달라 시험볼 때 많이 어렵다.	3.79
28. 존대말을 구분하기 어렵다.	3.00
■ 군집명 : 경제적 어려움	4.07
20. 장학금 금액이 적다.	4.36
22. 유학생회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4.07
37. 한국학생과 유학생의 장학금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	3.50
41. 유학생은 장학등급이 C급 뿐이어서 공부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4.36
10. 기숙사비가 비싸다.	4.07
■ 군집명 : 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및 식생활 어려움	3.26
7.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	3.21
15. 문화차이로 인해 적응하기 힘들다.	2.57
26. 술을 너무 많이 먹는 대학생활에 적응이 안된다.	2.93
29. 음식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3.79

진술문	중요도
12. 한국사람이 중국과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중국인을 무시해서 힘들다.	3.14
5. 한국인 대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3.57
6. 문화와 생활이 달라 한국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3.14
32. 학교활동 참여자가 거의 한국인이어서 혼자라 외롭다.	3.71
38. 학과 행사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	3.43
39. 학교에서 관광지에 많이 가지 않는다.	3.29
19. 일부 교수님이 수업에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아 싫다.	3.29
36. 일부 교수님들이 외국학생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3.07
■군집명 : 대학시설 및 운영제도에 대한 불만	3.17
30.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기숙사 방이 적고 학생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	2.64
31. 기숙사에서 국제전화하기가 불편하다.	2.14
17. 기숙사 외국인 공공주방에 중국인의 사용이 금지되서 싫다.	3.93
23. 학교 밖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불편하다.	3.50
25. 기숙사에 점심이 안 나와서 싫다.	3.57
33. 학교 순환버스가 많지 않아 수업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다.	3.43
34. 학교 위치가 시내랑 떨어져서 물건 사는 것이 불편하다.	3.93
16. 매학기 기숙사를 재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3.64
18. 수강신청이 어렵다.	3.50
8. 수업과 수업사이 시간 배정이 좋지 않다.	2.57
11. 기숙사 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 할 수 없다.	3.71
4. 교내 순환버스 배차 설명이 잘 안되어 있어 타는 방법을 모르겠다.	2.14
2. 학교 교내 전문 문구점이 없다.	2.57
21. 기숙사 방을 학기마다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	3.93
1. 기숙사에 독방을 쓸 수 없는 게 불편하다.	3.14
27. 학교 공공시설의 외국어 설명이 적다.	2.43

<표 IV-4>에 나타난 바 군집분석 결과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및 식생활 어려움,’ ‘대학 시설 및 운영제도에 대한 불만’의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집의 부적응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에는 ‘과목의 전문용어가 어렵다,’ ‘수업 중에 보고서나 발표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교수님 발음과 말하는 속도를 적응하기 힘들다’ 등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는 ‘장학금 금액이 적다,’ ‘유학생생활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한국학생과 유학생의 장학금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 등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및 식생활 어려움’ 군집에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 ‘문화차이로 인해 적응하기 힘들다,’ ‘한국사람이 중국과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중국인을 무시해서 힘들다,’ ‘한국인 대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학과 행사 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시설 및 운영제도에 대한 불만’으로는 ‘기숙사 외국인 공공주방에 중국인의 사용이 금지되어 싫다,’ ‘학교 위치가 시내랑 떨어져서 물건사는 것이 불편하다,’ ‘기숙사 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없다,’ ‘기숙사 방을 학기마다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 등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4)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의 41개 진술문에 대해 각 진술문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지를 5점 척도(매우 공감함 : 5점, 공감함 : 4점, 약간 공감함 : 3점, 공감하지 않음 : 2점, 전혀 공감하지 않음 : 1점)으로 평정하였다.

우선 각 군집에 대한 평정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군집인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은 M=3.74, 두 번째 군집인 ‘경제적 어려움’은 M=4.07, 세 번째 ‘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및 식생활 어려움’의 경우는 M=3.26, 마지막으로 ‘대학시설 및 운영제도 불만’ 군집은 M=3.17으로 평정되었다. 중국인 유학생생활 중 부적응 요인 중 가장 공감을 하는 군집으로 두 번째 군집인 ‘경제적

어려움'(M=4.07)으로 나타났다. 주된 진술문은 한국학생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대학의 장학금 제도의 불공평함이었다. 이는 연구참여자와의 면접 시 가장 많이 거론된 진술문이었다. 다음으로는 '언어차이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M=3.74), '사회 문화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및 식생활 어려움'(M=3.26), '대학시설 및 운영제도 불만'(M=3.17)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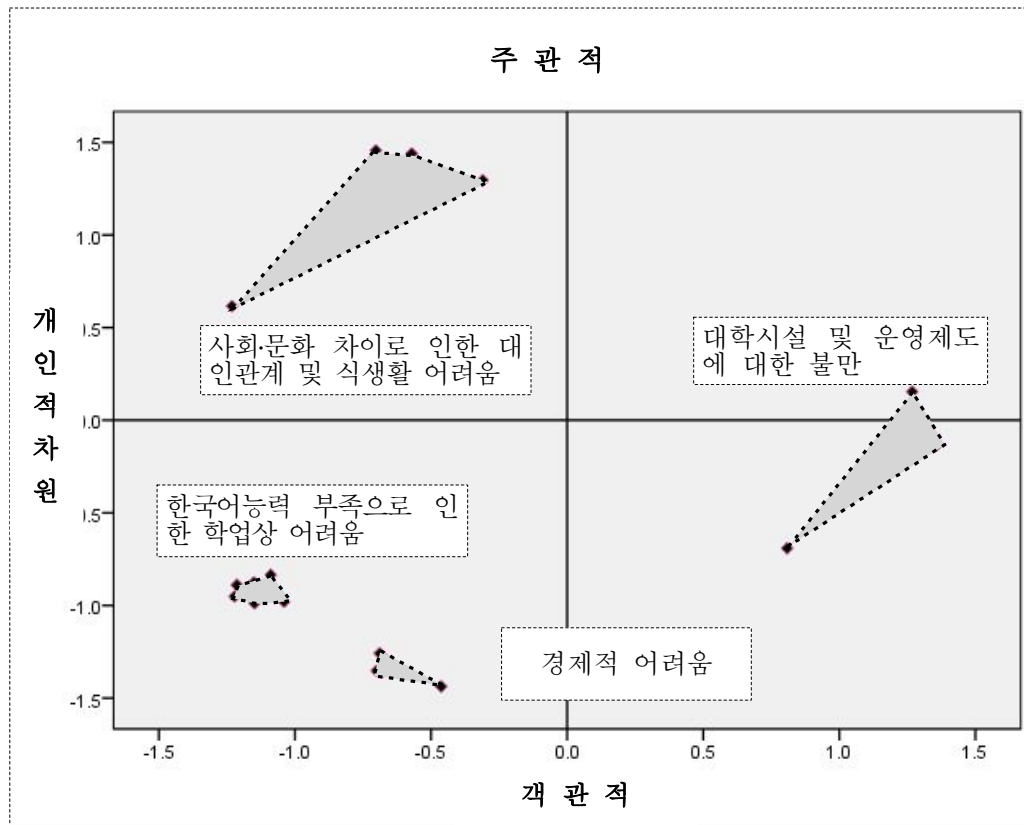
구체적인 진술문 중에서는 '유학생은 장학등급이 C급 뿐이어서 공부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안된다.'(M=4.36)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아 중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공감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타국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유학생에게 있어 대학의 장학금은 유학생생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수님의 발음과 말하는 속도를 적응하기 힘들다.'(M=4.14), '전공과목의 전문용어가 너무 어렵다.'(M=4.14), '수업 중에 보고서나 발표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M=4.07), '유학생생활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M=4.07), '기숙사 비가 비싸다.'(M=4.07)등이 4점대로 높게 평정되었다.

평정점수가 3점대의 진술문에는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M=3.93), '학과 행사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M=3.43), '학교 위치가 시내랑 떨어져서 물건 사는 것이 불편하다.'(M=3.93), '기숙사 외국인 공공주방에 중국인의 사용이 금지되어 싫다.'(M=3.93), '기숙사 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없다.'(M=3.71) 등으로 나타났다.

진술문 중 가장 낮게 평정된 것으로는 '기숙사에서 국제전화 하기가 불편하다.'(M=2.14), '교내 순환버스 배차설명이 잘 안되어 있어 타는 방법을 모르겠다.'(M=2.14), '수업과 수업사이 시간 배정이 좋지 않다.'(M=2.57), '학교 교내 전문 문구점이 없다.'(M=2.57),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기숙사 방이 적고 학생수용능력이 떨어진다.'(M=2.64) 등으로 대부분 '대학시설 및 운영제도 불만' 군집에 속해있는 진술문들로 나타났다.

5) 개념도 해석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생생활 중 느끼는 부적응 요인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IV-4]과 같다.



[그림 IV-4]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41개의 진술문들이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로 지도위에 분포되었으며, 각 점들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보다 빈번하게 동일한 군집으로 분류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개념도 상에서 가까이 위치한 점들은 멀리 위치한 점들보다 개념적으로 유사하게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개념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은 개념도의 왼쪽 아래쪽에 위치하여 개인적 차원-객관적 성향의 군집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전공과목의 전문용어가 너무 어렵다’, ‘언어가 달라 시험 볼 때 많이 어렵다’, ‘수업 중 교수님이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교수님의 발음과 말하는 속도를 적응하기 힘들다’, ‘낮은 한국어 능력 때문에 시험 점수가 노력만큼 안 나온다’ 등 이다. 이는 언어가 다른 중국인으로써 한국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학업과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대한 어려움과 관련된 군집으로 한국어가 미숙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동시에 간혹 수업 중 제주지역의 사투리 사용으로 인해 더욱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념도 좌표상 비교적 가운데 아래쪽에 위치하여 이 또한 개인적 차원-객관적인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진술문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기숙사 비가 비싸다’, ‘유학생회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장학금 금액이 적다’, ‘한국학생과 유학생의 장학금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 등으로 이는 중국유학생들이 유학생회 중에 기숙사비, 학비, 생활비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의 진술문들 중 중요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군집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시 아르바이트로 인해 일부 생활비는 충당 할 수 있으나 학비의 경우 너무 부담이 커 장학금을 타고자 노력하는 유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대학 내 장학금 금액이 적거나, 성적 2.7이상 받은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C급 정도밖에 주지 않는 등 한국인과 유학생의 장학금 제도가 달라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세 번째는 개념도 좌표상에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개인적 차원-주관적 진술문을 포함하는 군집으로 ‘사회 · 문화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및 식생활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 군집에서는 ‘한국 사람이 중국과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중국인을 무시해서 힘들다’, ‘한국인 대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학과 행사 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 ‘학교활동 참여자가 거의 한국인이어서 혼자라 외롭다’, ‘술을 너무 많이 먹는 대학생회가 적응이 안된다’ 등으로 유학생회 중 대인관계 어려움과 ,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 ‘음식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등의 식생활 적응 어려움이 혼재되어 있는 그룹이다. 이는 중국과 한국의 사회, 문화인식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대인관계 및 식생활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보인다. 네 번째 군집은 좌표상 맨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군집은 물리적 차원이 강한 군집으로 ‘대학 시설 및 운영제도에 대

한 불만'을 나타내는 군집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기숙사 방이 적고 학생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 '기숙사에서 국제전화하기가 불편하다', '기숙사 외국인 공공주방에 중국인 사용이 금지되어 싫다', '학교 순환버스가 많지 않아 수업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다', '매학기 기숙사를 재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기숙사 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 할 수 없다', '기숙사 방을 학기마다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 '학교 교내 전문 문구점이 없다.' 등으로 대학 시설 및 운영제도상의 불만을 나타낸 군집으로 특히 기숙시설의 운영상의 불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통하여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이 지각하는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과 각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본 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을 인식하는 차원과 요인 및 각 군집별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지를 기존의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논의

1) 차원과 대학생활 부적응 군집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을 추출하여 다차원 척도분석 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차원과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개의 차원 중 1차원은 환경적-개인적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환경적 차원은 대학의 시설 및 행정에 대한 것 등을 부적응 경험으로 인식하는 차원이고, 개인적 차원은 개인적 능력부족으로 인한 것을 부적응 경험으로 인식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2차원은 주관적-객관적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주관적 차원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 차원이고, 객관적 차원은 부적응 요인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차원이다.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부적응 경험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기술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결과로 이유영 등(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생생활 적응을 위한 자신의 변화양상을 사회적-개인적, 심리적-행동적의 2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명명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 경험을 환경적-개인적,

주관적-객관적의 2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명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인 유학생들이 진술한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군집으로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 두 번째 군집으로 ‘경제적 어려움’, 세 번째 군집으로 ‘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및 식생활 어려움’, 마지막 군집으로는 ‘대학 시설 및 운영 제도에 대한 불만’의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임춘희(2007)의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문화 스트레스를 중국문화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생활방식, 음식 등의 문제를 포함한 ‘문화차이’, 수업이나 성적, 교수, 교육적 지원 등의 문제를 포함한 ‘교육적 스트레스’, 외로움 등을 나타내는 ‘심리적 스트레스’, 장학금이나 생활비 등의 어려움을 포함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한국어 언어소통 등의 문제를 나타낸 ‘언어 스트레스’ 등으로 분류한 것과 유사하다.

2)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 군집별 상대적 중요도

본 연구에서 분류된 4개의 군집 중 가장 평점이 높은 군집으로는 ‘경제적 어려움’(M=4.07)이었다. 이는 장혁심(2005)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장학금 혜택과 아르바이트 제 공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나임순(2006)의 선행연구에서도 특히 이런 대학의 장학금 지원액의 부족과 다소 불분명한 장학금 기준 등이 중국인 유학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평점이 높은 군집은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M=3.74)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유학초기 익숙하지 못한 한국어로 인해 보고서를 쓰거나 필기하는 것은 물론 학사 진행 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과 동일하다(충청일보, 2008.3.26). 또한 나임순(2006)의 연구에서도 대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발표자료 중심의 시각적 자료에 의존한 빠른 수업진행방식은 한국어가 서툴고 이해속도가 느린 유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중 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

혁수 · 전경태(2009)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언어능력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는데 상당수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한국어 구사 능력과 관련하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한국어 능력과 관련한 낮은 만족 수준은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저해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유학 전 한국어 학습정도는 대학생활 중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김귀성 · 황지인, 2009) 보고하고 있다. 김현주 외(1997)의 연구도 이러한 언어능력에 따른 대학생활 부적응 영향을 인정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육정도, 소득,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등도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변수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언어 능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김선남, 2007). 또 허춘영 외(1999)도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생활과 학업 중에 언어장벽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언어는 학업을 유지하고 지속시켜 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유학생의 대학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유학생들은 대학이 요구하는 특정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또 그 과정에서 발표와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얼마나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는가,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어 언어구사 능력이 높은 유학생이 그렇지 않은 유학생보다 더 대학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김선남, 2007).

세 번째로는 ‘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및 식생활 어려움’(M=3.26)에 관한 군집이다. 이 군집은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 · 사회적 인식 차이 및 중국인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 어려움과 식생활 문화 차이로 인한 음식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로 중국인에 대해 교수님과 동료학생으로부터 느끼는 편견과 소외감이 대학생활에 부적응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설명된다. 이는 최근의 동아일보(2011) 및 조선일보(2011) 등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시설 및 운영제도에 대한 불만’(M=3.17)을 나타낸 군집으로 세부 진술문 중 절반 이상이 대학 기숙시설과 기숙사 운영제도에 대한 불만을 진술하고 있다. 대학교의 기숙시설은 중국인 유학생들에 있어 중요한 생활공간이자 한국 대학생들 및 타 외국인 유학생들과 가장 가까워서 접하게 되는 교류현장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업적 어려움과, 유학생의 장학제도, 교수와 동료 간의 관계 스트레스, 문화차이, 기숙시설, 기타 중국인 유학생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교육적 지원 제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들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부적응 요인들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대학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중국인 유학생의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대학당국의 교육환경 개선노력과, 유학생 관리와 관련된 합리적인 제도적 개선 및 다문화적인 대학문화와 사회 문화적 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하다.

2. 제언

본 연구는 앞으로 늘어날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내용과 방법에 관해 실제 중국인 유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부적응 요인을 알아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유학생생활 중 경제적 요인 즉 대학의 장학지원제도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학업의욕 저하나 중도탈락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대학당국은 한국대학생과 차별되는 유학생 장학금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학지원제도 및 취업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원만한 대학생활 적응의 또 다른 방해요인이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적 어려움이므로 한국어 능력시험 등 유학자격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일정한 학업수행 능력을 갖춘 유학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중국인 유학생이 소속된 학과 및 전공에서 유학생 학업도우미 제도 등을 마련하여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및 특히 제주지역 방언 및

문화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이 중국인과 중국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유학생들의 학교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주는 유학생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당국은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의 제반 시설과 이를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들의 불만사항 특히, 기숙사 개방시간, 기숙사 시설 관리, 유학생의 생활방식을 고려한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제한점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직접 산출한 현상적인 경험을, 개념도 연구방법을 실시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을 밝혀내는데 보다 실제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중국인 유학생의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방해되는 요인에 대해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적 구조들을 통해서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제주지역에 소재하는 J대학교에 유학생으로 연구결과가 J대학교에 국한되는 결과로 제주지역 유학중인 모든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이라 일반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족(漢族)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한족과 조선족간의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같은 국가지만 다른 민족출신으로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지닌 한족(漢族) 출신과 조선족(朝鮮族) 출신간의 비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념도 연구는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구조화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토론을 중요시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대상자들이 중국인으로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 없는 한계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아닌 설문조사로 대체하여 경험하는 주관적 세계를 깊이 나누지 못한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성별, 연령, 경제력, 유학준비기간, 체류기간, 한국어실력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각 변인들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각 변인에 따른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 및 상대적 중요도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이화, 김아영, 김대현 (2007).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21(3), 65-88.
- 경수영, 장수미 (2010).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업사회**, 34, 399-421.
- 공영태 (2005).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예비교육에 관한 고찰. **일본학보**, 62, 267~282.
- 김규원 (1995). 국제화시대의 한국인의 대외양식. **성곡논총**, 26, 985-1021.
- 김귀성, 황지인 (2009).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연구.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학생생활연구**, 29, 1-25.
- 김삼화 (2005). **다문화적 맥락에서의 대인관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재한 중국유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남 (2007). 중국 유학생의 국내대학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정치정보연구** 10(1), 185-206.
- 김영성 (2006). 호주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거주이동. **지리학 연구**, 40(4), 497-512.
- 김재우 (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 유형이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초심상담자와 상담전문가가 겪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0(2), 762-792.
- 김현주, 전광희, 이혜경 (1997).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40, 105-139.
- 나임순 (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박광배 (2000). **다차원 척도법**, 서울 : 교육과학사.

- 박경우, 여은호(2010).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소통인식에 관한 연구, *Speech & Communication*, 14, 64-94.
- 박미숙 (2010). **중국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실태 조사 분석 -대구, 경상도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한기, 서주원 (1987). 문제요인별로 본 대학생활 적응도,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7, 35-71.
- 오창환, 정철영 (2008). 교육훈련 성과지표 개발 단계에서의 개념 매핑 기법의 활용 가능성 탐색. *산업교육연구*, 17, 65-89.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유영, 김한주, 남숙경, 김령, 양은주 (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경험 - 대처와 지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8(3), 379-403.
- 이은실(2008). **중국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실태조사**, 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지훈 (2011). **SPSS 18.0 매뉴얼**, 서울 : 집현재.
- 이혜영 (200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18, 279-301.
- 이현아 (2010). **학교상담의 도움요소와 불만족요소에 대한 개념도 연구 - 중학생 내담자와 전문상담교사의 인식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춘희 (2007).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8(1), 93-112.
- 정찬석 (2005).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측면 탐색연구 - 개념도 방법론을 통한 상담자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혁수, 전경태 (2009).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0(3), 193-223.
- 장혁심 (2005). **서울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택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 (Concept Mapping) 연구 -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간의 비교-. **상담**

- 학연구, 8(3), 1031-1045.
- 최재영, 신준섭 (1997). 재미 아시아계 유학생들의 스트레스 체험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4, 259-292.
- 허보연 (2010). 개념도 방법을 통한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춘영 (1998).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실태 - 한족, 조선족 유학생간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춘영, 김광일 (1997).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양상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연구*, 16, 166-178.
- 허춘영, 김광일, 이장한 (199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18, 107-133.
- 황해연 (2007).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기선 (1985).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 나남.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Jackson, K & Trochim, W. (2002). Concept mapping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the analysis of open-ended survey respons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5(4), 307-336.
- Zou Zhendong (2009). 부산지역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ane, M. & Trochim. W. (2006).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Sage : Publicatuons.
- Kane, M. & Trochim. W.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 Sage Publicatuons.
- Trochim, W.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 Strauss, A., & Cobin, J. (1998). Basci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Thousand Oaks, CA : Sage.

- Ward. C. & Kennedy. A. (1994). Acculturation strategie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ocultural competence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8(3), 329-343.
- 교육과학기술부 (2004).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적극 나선다. <http://mest.korea.kr/gonews/>
- 교육과학기술부 (2008).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수립. <http://mest.korea.kr/gonews/>
-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과부 장관, 중국인 유학생 대상 특강에서 유학생 유치 및 지원 강화의지 밝혀. <http://mest.korea.kr/gonews/>
- 동아일보 (2011).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 추악한 제노포비아. <http://news.donga.com/3/all/20111121/42021685/1>
- 대학알리미 (2011). <http://www.academyinfo.go.kr/>
- 연합뉴스 (2011). 제주 외국인 유학생은 관광홍보 첩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4/28/0200000000AKR20110428201000056HTML?did=1179m>
- 제주의소리 (2011). 제주특별도 5년 종합평가. <http://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973#/>
- 조선일보 (2011). 중국에 반한감정 불러 일으키는 한국언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1/2011072100983.html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2010년 통계자료.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 충청일보 (2008). 중국인 유학생 그들은 누구인가.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53628/>

<Abstract>

A Concept Mapping Study of Chinese Students' Campus Life
Maladjustment Factors in Jeju Island

Lee, Sung Mi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Jae Ho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dentify the conceptual structure of factors preventing Chinese students from adapting to campus life on Jeju Island.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stresses faced by Chinese students when entering a new culture of campus life. However, most of these are quantitative research projects aimed at figuring out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like length of stay, gender and age with regard to enculturation stress and adaptation to campus life. Therefore, practical and specific data on factors preventing Chinese students from adapting to campus life are needed.

This study uses a concept mapping to identify these factors in Chinese students' campus lives in a realistic, practical way and to determine visually the participants' cognitive structure.

The subjects of study have been set as follows. The first is factors which Chinese students are aware of, and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 which prevent students from adapting to Jeju campus life. The second subject i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se maladaptation factors. For the two subjects, this study follows the process as detailed below.

First, fifteen Chinese students who attend “J” University were interviewed and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on factors preventing them from adapting to campus life on Jeju Island. As a result of this, 110 answers were collected. The data was then correlated and edited into 41 definitive answers. These answers were subsequently classified by 14 of the same study participants. They rated these 41 answers on a five-point scale. Based on their classification, a conceptual diagram consisting of 2 dimensions and 4 clusters was determined by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for each subje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Jeju I니퐁 are aware of campus life maladaptation from two dimensions: ‘subject-object’ and ‘individual-environmental’. Second, Chinese students’ maladaptation was classified into 4 clusters. These are defined as ‘learning difficulties due to non-fluency in the Korean language’, ‘financial troubles’, ‘interpersonal and diet difficulties due to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complaints regarding college facilities and academic system’. Among the 4 clusters, the ‘financial troubles’ cluster showed the greatest maladaptation difficulty with $M=4.07$. The ‘learning difficulties due to non-fluency in the Korean language’ cluster followed as the second-largest factor in students’ maladaptation with $M=3.74$.

A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direction for subsequent studies are suggested.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자 : 이성미(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연락처 : dinogo@jejunu.ac.kr, 010-9478-0979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을 연구함으로써 대학생활 부적응요인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의 학문적·실제적 기여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를 위해서만 소중히 사용될 뿐, 그 외의 용도로 전혀 사용되지 않음을 강조해 드립니다. 또한 비밀보장을 반드시 보장해드리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과 이 연구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뜻 깊은 이야기를 해 주심으로서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겪는 어려움 혹은 적응 상의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적응요인에 대한 실제이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월 일

참여자 : (서명)

<부록 2>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부적응 관련 진술문

진술문

1. 기숙사에 독방을 쓸 수 없는게 불편하다.

기숙사 생활 독방 사용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

기숙사에서 혼자 방을 쓰고 싶다.

혼자 방 쓰고 싶다.

2. 학교 교내 전문 문구점이 없다.

학교 교내 전문 문구점이 없다.

문구 종류가 많이 없다.

3.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수업과목 중 몇몇 과목은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어를 몰라 수업이 어렵다.

언어차이로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힘들다.

4. 교내 순환버스 배차 설명이 잘 안되어 있어 타는 방법을 모르겠다.

아직까지 교내 순환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모른다.

교내 순환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모른다.

학교버스 타는거 모르겠다.

5. 한국인 대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한국인과 교류기회가 적다.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학교에서 한국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적다.

6. 문화와 생활이 달라 한국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생활방식이 달라 한국 친구를 사귄 수가 없어 힘들다.

고정된 반이 없어 친구가 적다.

한국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생활습관이 달라 한국친구 만들기 힘들다.

중국에서 보다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한국인이 틀려 친구 사귀기 어렵다.

한국 친구랑 생활습관이 달라 힘들다.

문화차이 때문에 한국 친구 사귀는게 쉽지 않다.

문화차이로 한국친구 만들기 힘들다.

한국을 몰라 한국친구사귀기 어렵다.

7.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

- 음식이 안 맞는다.
- 음식이 안맞다.
- 음식이 입에 잘 안맞는다.
- 음식이 입맛에 안맞는다.
- 음식이 익숙하지 않다.
- 음식이 맛이 없다.

8. 수업과 수업사이 쉬는 시간이 짧다.

- 쉬는 시간이 없다.
- 수업쉬는 시간 조정이 안 좋다.

9. 언어가 달라 시험 볼 때 많이 어렵다

- 한국말 몰라 시험 때도 많이 힘들다.
- 언어가 달라 시험지를 잘 이해 못하겠다.
- 시험볼 때 한국어로 쓰는게 어렵다.

10. 기숙사비가 비싸다.

- 기숙사비가 비싸다.
- 기숙사비가 비싸다.
- 학생생활관 방값 비싸다.

11. 기숙사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 할 수 없다.

- 기숙사 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 할 수 없다.
- 기숙사 문 너무 일찍 닫는다.

12. 한국사람들이 중국과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중국인을 무시해서 힘들다.

- 문화차이가 사상의 차이를 가져와 무시한다.
- 한국사람이 중국사람을 무시하고 중국의 현재 상황 등으로 인해 무시당해서 힘들다.
-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적응하기 어렵다
- 한국, 중국 간의 충돌로 인해 어렵다.

13. 전공과목의 전문용어가 너무 어렵다.

- 한국어로 전공공부 하기가 어렵다.
- 전공수업의 전문용어가 너무 어렵다.
- 전공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내용을 알아들을 수 가 없다.
- 한글도 어려운데 전공수업에 맡은 더 어렵다.

진 술 문

14. 수업 중에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발표수업 있으면 PPT만들고 하는 것이 힘들다.
수업 보고서 또는 발표자료 만드는 것이 어렵다.
과제적응이 안된다.
발표수업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15. 문화차이로 인해 적응하기 힘들다.

한국친구들과 교수님과의 문화차이
한국문화를 잘 몰라서 실수가 많다.
문화차이가 있다.
중국과 한국문화 차이로 인해 힘들다.
문화차이로 힘들다.

16. 매 학기 기숙사를 재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매 학기 마다 기숙사 재신청 하는 것이 어렵다.
기숙사 자주 신청하는게 싫다.

17. 기숙사 외국인 공공주방에 중국인의 사용이 금지되서 싫다.

외국인 공공주방 사용금지 싫다.
기숙사에서 중국인이 외국인 공공주방 사용이 안된다.

18. 수강신청이 어렵다.

수강신청하는 것이 적응이 안된다.
수강신청이 어렵다.
수강신청 하는게 힘들다.

19. 일부 교수님이 수업에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아 싫다.

20. 장학금 금액이 적다.

장학금 금액이 적다.
장학금액 작다.

21. 기숙사방을 학기마다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

기숙사방을 학기마다 바꾸는 것이 힘들다.
학생생활관 방을 자주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

22. 유학생화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들어 힘들다.
유학에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
대학 다니는데 돈이 많이 든다.

진 술 문

23. 학교 밖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불편하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불편하다.
학교가 멀어 차타고 나가는게 힘들다.

24. 교수님의 발음과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교수님의 발음과 말하는 속도가 적응하기 어렵다.
교수님이 말을 너무 빨리한다.
교수님 발음이 안좋다.

25. 기숙사에 점심이 안 나와서 싫다.

기숙사 점심 안나온다.
기숙사 식당에 점심이 안나와서 싫다.

26. 술을 너무 많이 먹는 대학생활에 적응이 안된다.

대학생활 행사때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술 너무 많이 먹는 대학생활이 어렵다.

27. 학교 공공시설의 외국어 설명이 적다

28. 존대말을 구분하기 어렵다.

높임말 같은 것이 적응이 안된다.
존대말을 구분하기 어렵다.

29. 음식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음식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한국음식 종류가 적어 적응되지 않는다.

30. 설비가 잘되어 있는 기숙사가 방이 적고 학생수용 능력이 떨어진다.

기숙사 인터넷 설비가 잘 안된다.
설비가 잘되어 있는 기숙사가 적고 학생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31. 기숙사에서 국제전화하기가 불편하다.

32. 학교활동 참여자가 거의 한국인이여서 혼자라 외롭다.

학교활동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 한국 학생이여서 혼자라서 외롭다.
학교 행사때 아는 친구가 없어 학교생활이 우울하다.
놀러갈 때 중국친구가 없어 심심하다.

33. 학교 순환버스가 많지 않아 수업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다.

학교 순환버스가 많지 않아 기숙사에서 정문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다.
학교 셔틀버스가 많지 않아서 수업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다.

진 술 문

34. 학교 위치가 시내랑 떨어져서 물건 사는 것이 불편하다.

학교가 멀어 교통이 불편하다.

학교의 위치가 시내랑 떨어져서 물건 사는 것이 불편하다.

35. 낮은 한국어 능력 때문에 시험 점수가 노력만큼 안나온다.

한국어 때문에 수업점수가 노력만큼 안나온다.

시험 볼 때 한국어를 몰라 너무 힘들다.

시험이 이해가 안간다.

36. 일부 교수님들이 외국학생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37. 한국학생과 유학생의 장학금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

장학금 제도가 안좋다.

장학금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

38. 학과 행사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

39. 학교에서 관광지에 많이 가지 않는다.

40. 수업 중 교수님이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수업 때 교수님께 사투리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수업때 사투리가 심해서 의사소통이 안된다.

제주도 사투리가 이해 안가서 수업을 모르겠다.

41. 유학생은 장학등급이 C급 뿐이어서 공부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2.7이상 모두 C등급 장학생이어서 공부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유학생 장학등급이 하나 뿐이라 불공평 하다.

감사의 글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란 저에게 과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여러
고마운 선생님들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해 죄송함을 먼저 느낍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껴왔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
논문에 담았습니다. 제가 몸을 담은 조직에 아주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 연구에 바쁘신 와중에도 부족한 제자를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신
송재홍 지도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많은 가르침을 주고자 하신 김양순 교수님과 김효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부족한 딸을 언제나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늘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항상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2012년 8월

이 성 미